4월 20일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의 날이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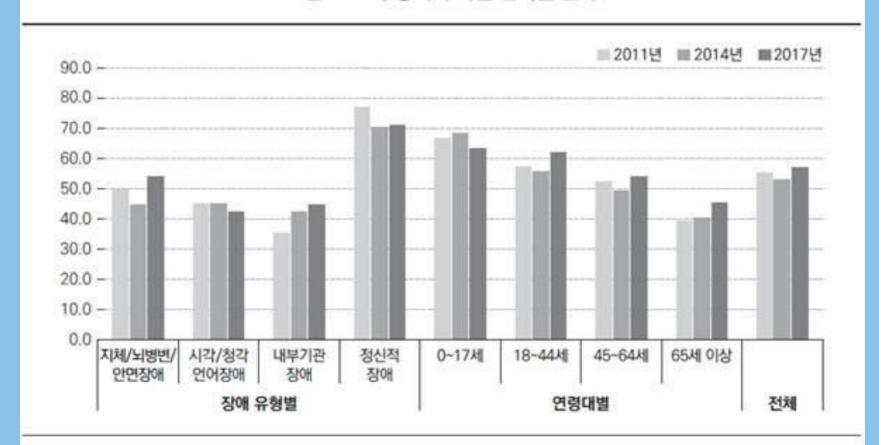
하지만, 장애인들은 이날이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불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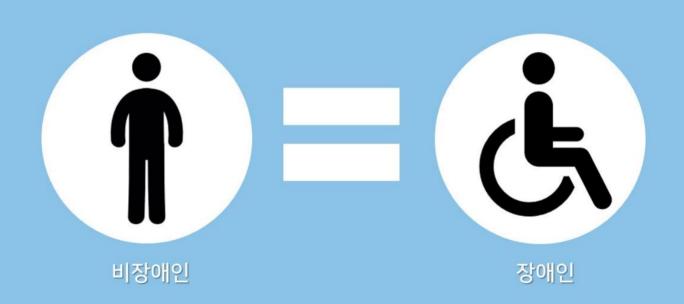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현재 본인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항상 느낀다", "가끔 느낀다"는 응답은 34.8%로 전체 장애인 3분의 1 이상이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림 4. 교육 영역의 차별 인식률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 회연구원(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이 표현에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날을 지정함으로써 배려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는 응답이 60.7%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다르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사는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가족들이 받는 인식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